진실에 오른다 -밀레 MILLET

光州日報

우암학원 창학63주년
광주의 새로운 명문 대학교 남부대학교 062)970-0114
꿈을 이루는 특성화 대학 전남과학대학교 061)360-5050

JCI 아태대회 개막…광주가 들썩 ▶2
흑비의 습격, 여수의 눈물 ▶6
공포의 '검빨 유니폼' 입는 KIA ▶14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2-8111 kwangju.co.kr 제19507호 1판 2013년 6월 13일 목요일 (음력 5월 5일)

비 오는 날 오후의 수채화

이르면 다음주부터 장마가 시작될 것이라는 예보 속에 간간이 비가 내린 12일, 광주시 광산구 첨단지구 산책로에서 주민들이 우산을 쓴채 걸어가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전남 무분별한 산단개발 제동

미분양 용지 수요의 26배나
10배 초과땐 국고지원 제한

道, 산단계획 조정 실무회의 면적 축소·착공 연기 논의

전남도가 무분별한 산업단지 개발을 체계적으로 재배치하는 구조 조정에 돌입했다.

현재 추진중이거나 계획 중인 산업단지 미분양 용지가 수요보다 무려 25.6배나 넓어 진입도로 등 국고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12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내에서 개발 중이거나 미분양된 산업용지는 2992만1000㎡에 달하지만 2011년 국토부 용역 결과 연간 수요면적은 114만㎡이었다. 수요에 비해 26.2배가 많은 산업단지를 조성한 셈이다. 또 공장을 짓겠다는 수요는 없는데 무분별하게 산업단지를 만들어 분양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뜻이다.

지자체의 이 같은 무분별한 산업단지 개발에 최근 정부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정부는 개발 중이거나 미분양된 산업용지가 연간수요면적보다 10배를 초과하면 '향후 지정되는 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 비용 등 국고지원을 하지 않겠다'며 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운영지침을 변경했다.

지난달 24일 국토부 주관으로 열린 산업단지 관계기관 회의에서도 미분양 면적이 지난해말 보다 증가한 시·도는 국비지원과 지정계획 등을 제한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전남도내에서 개발 중이거나 미분양된 산업단지 용지는 지난해 2918만8000㎡에서 지난 3월말 현재 2992만1000㎡으로 73만3000㎡이 증가한 상태다.

현재 전국 시·도 중 개발 중이거나 미분양된 산업단지 용지가 수요보다 많은 곳은 전남이 25.6배로 최고 수준이며, 경북 16.7배, 대구 13.6배, 충남 8.7배, 광주 8.6배, 충남 8.7배 등 평균 8.5배에 달한다.

이처럼 전국에 산업단지 부지는 많지만 공장을 짓겠다는 기업은 갈수록 찾기 힘든 실정이다. 이명박 정부와 현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에 따라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이 부진하고, 저성장의 장기화로 산업용지 수요가 없기 때문이다.

또 산업단지로 지정만 되고 지자체가 제때 개발을 하지 않아 토지소유자들의 민원도 잇따르고 있다.

전남 지역에는 여수 율촌 2단지, 율촌 3단지, 나주 미래, 광양 세풍, 고흥 도양, 보성 신소재, 진도 군내, 신안 조선타운 등 8곳의 산업단지가 지정만 되고 첫 삽도 뜨지 못하고 있다.

이에 전남도는 지난 5일 산단 시행자와 관계자들과 함께 '산업단지계획 조정 실무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의 제재를 받지 않기 위해 산단 지정면적을 축소하거나 공사 착수시기를 조정하는 등의 방안을 논의했다. 아직 착공하지 않은 산단을 현실에 맞게 축소하고, 일부 산단의 공사 착수 시기를 2020년 이후로 미룬다는 것이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남북 자존심 싸움 접고 회담 재추진 나서야"

남북 당국회담 무산에 광주·전남지역민들 촉구

남북 당국회담이 수석대표의 격(格)을 놓고 대립하다 끝내 무산된데 대해 광주·전남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지방의회, 대북지원단체 등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며 남북 회담의 재추진을 촉구하고 나섰다.

6·15 광주전남본부는 12일 광주 YMCA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남측이 회담 수준을 장관급으로 제안했고, 회담대표는 남과 북이 각각 알아서 결정하면 되는 문제"라며 "지금은 자존심을 놓고 싸울 때가 아니라 서로 차이를 인정하고 양보하는 자세가 필요한 순간"이라고 지적했다.

광주전남본부는 "박 대통령은 피눈물을 흘리고 있을 개성공단 입주기업들과 이산가족들의 아픔을 헤아려야 한다"며 "만약 정부가 정치적 계산으로 화해의 기회를 놓치면 국민이 용서치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남도의회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남북이 소모적인 기 싸움으로 인해 회담이 무산됐다"며 "한반도 평화를 바라는 국민적 열망에 찬물을 끼얹는 것으로 남북당국은 조속한 시일 내에 회담이 재개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2면에 계속〉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정부 "북에 수정제의 안한다"

판문점 연락채널 다시 불통

남북당국회담 무산이 결정된 다음날인 12일 남북간 판문점 연락채널이 다시 끊겼다. 이와 관련 통일부는 12일 남북당국회담 성사를 위해 북한에 수정 제의는 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관련기사 4·5면〉

우리측 판문점 연락관은 이날 오전 9시와 오후 4시께 북측 연락관에게 시험통화를 시도했지만 북측은 두 차례 모두 전화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11일 북한의 일방적인 단절 통보로 끊겼다가 남북회담 재개 합의로 지난 7일 3개월만에 정상화된 판문점 연락채널이 다시 끊어진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는 그러나 북측의 일방적인 불참 통보로 무산된 남북당국회담은 북한이 우리 수석대표의 급을 문제삼은 입장을 철회할 경우 언제든지 열릴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

알림

매일 만나는 원어민 선생님
영어 자신감이 쑥쑥 올라요

Fun & Talk 화상영어 수강생 모집

광주일보사는 초·중·고 학생은 물론 대학생·직장인들의 영어 의사소통능력 강화를 위해 원어민과 함께하는 화상영어 'Fun & Talk'를 시작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필리핀에 거주하고 있는 원어민 선생님과 매일 25분씩 인터넷을 통해 1대1로 영상과 음성을 주고 받습니다. 초보에서 고급 단계까지 체계화된 커리큘럼으로 맞춤형 눈높이 수업을 진행하며, 다양한 부교재, 뉴스, 동영상 자료를 활용해 재미를 더했습니다.

전문 강사진의 철저한 관리와 영어 첨삭지도도 진행합니다.

영어는 아이가 말을 배우듯 자연스럽게 체득해야 하는 언어습관입니다. 'Fun & Talk'는 자유롭고 수준에 맞는 양방향 소통으로 영어를 두려워하던 학생과 직장인들의 말문을 저절로 트이게 합니다.

방학 기간에는 뉴질랜드·필리핀으로 떠나는 영어캠프를 마련해 현지 문화와 실용영어를 동시에 익힐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합니다.

■주 최:광주일보사
■주 관:KJ COMMUNICATION(www.funntalk.com)
■수강료:월 12만5000원(1대1 수업, 25분, 주 5회)
■문 의:1661-8636, 010-4029-5111

Fun & Talk ONLINE CLASS English is exciting & interesting.

61 광주일보 창사61주년 since 1952 화갑의 해
ABC협회 인증
호남 최대 발행부수
광주일보는 지역 대표 정론지입니다

함평다이너스티컨트리클럽이
귀하의 품위를 업그레이드 해드립니다.
한폭의 수채화 같은 준비된 명작들을 더 가까이 만나실 수 있습니다.

넉 넉 함 – 독특한 분위기의 27홀의 넉넉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유로움 – 광주 –무안공항 고속도로 개통으로 귀하의 소중한 시간을 아껴 드립니다.
(자체제작한 천연비료사용으로 귀하의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신 선 함 – 매홀마다 특색있는 홀구성은 귀하께 신선함을 드립니다.

함평 다이너스티 컨트리 클럽 예약전화 061-320-7700·7777